

보도 일시	2022. 4. 17.(일) 12:00 2022. 4. 18.(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4. 17.(일) 12:00
담당 부서 <총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최주현 (044-202-7572)
<공동>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팀 장 손인수 (02-3145-5190)
		담당자	수석조사역 오민석 (02-3145-5186)

##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적립금은 295.6조원으로 전년(255.5조원)대비 15.7% 증가
- 총비용부담률은 0.417%로 전년(0.422%)대비 0.005%p 하락
- 연금수령 비중은 4.3%로 전년(3.3%)대비 1.0%p 상승
- 연간수익률은 작년 말 증시 영향으로 2.00% 기록(전년 2.58%)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전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수급 형태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퇴직연금 가입자 수, 가입률, 도입 사업장 수, 도입률은 매년 말 통계청에서 별도 작성·발표

□ 지난해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은 여전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약 295조원으로 성장했다.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22.5조원)은 확정기여형 적립금 증가액(17.6조원)을 추월하며 빠른 성장세 지속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연금수령 비중 또한 높아졌다.

## 1. 적립금 현황

-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55.5조원) 대비 40조 1천억원 증가(15.7%)한 295조6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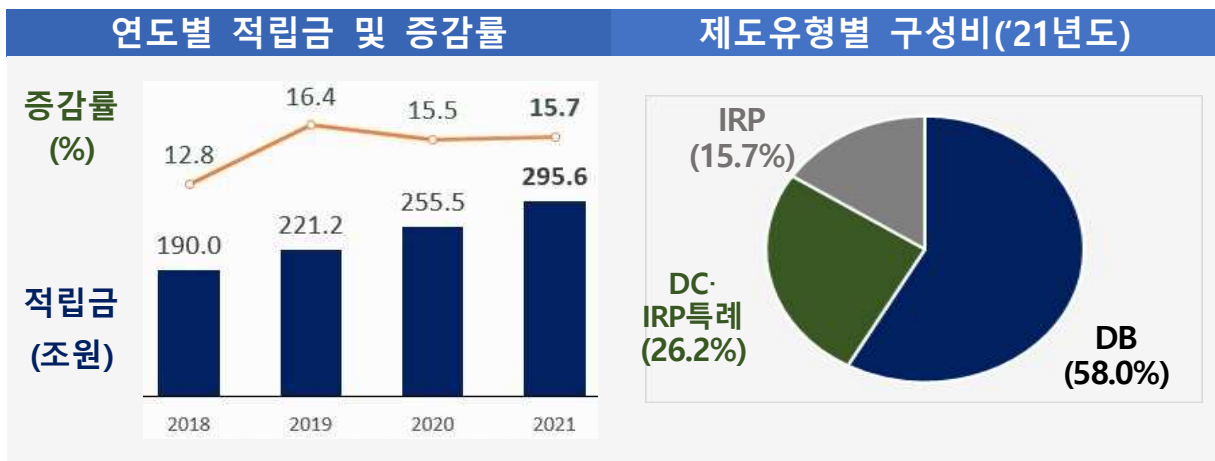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적립금(조원)	190.0	221.2	255.5	295.6
증감률(%)	12.8	16.4	15.5	15.7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71.5조원(58.0%), 확정기여형\*(DC) 77.6조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 46.5조원(15.7%)이 적립됐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IRP특례 포함

- 전년대비 증가폭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17.6조원 증가(11.4%), 확정기여형·IRP특례의 경우 10.4조원이 증가(15.4%)했다.
-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2.1조원이 증가하여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19) 32.4 → ('20) 35.5 → ('21) 35.1



- 상품유형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로는 전체 적립금 295.6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255.4조원(86.4%,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0.2조원(13.6%)을 차지했다.

○ 특히 확정기여형(20.7%) 및 개인형퇴직연금(34.3%)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확정급여형 4.8%),

○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도 전년대비 2.9%p(12.8조원)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17) 8.4 → ('18) 9.7 → ('19) 10.4 → ('20) 10.7 → ('21) 13.6

□ 금융권역별(은행, 생보, 금투, 손보, 근복단) 적립금 점유율은 은행(50.6%)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2.0%), 금융투자(21.3%), 손해보험(4.8%), 근로복지공단(1.3%) 순서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금융투자의 경우 22.1% 증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5.3% 증가하여 운용관리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금융투자가 27.7%로 가장 높았으며 권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은행(12.6), 생보(5.4), 금투(27.7), 손보(1.3), 근복단(3.5)

## 2. 운용수익률

□ 연간수익률은 2.00%로 전년(2.58%) 대비 0.58%p 감소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96%, 2.39%를 보였다.

▶ ①초저금리 지속, ②주가 정체로 연간수익률 하락

\* 연간수익률(%): ('17) 1.88 → ('18) 1.01 → ('19) 2.25 → ('20) 2.58 → ('21)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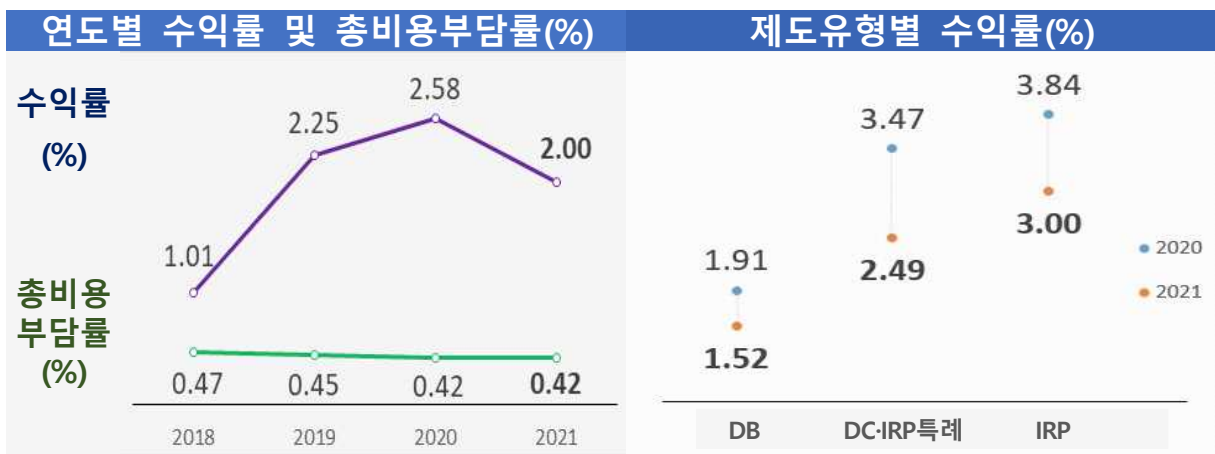
○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35%, 실적배당형은 6.42%이며,

\* '20년 상품유형별 수익률(%): 원리금보장형 1.68%, 실적배당형 10.67%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52%, 확정기여형·IRP특례 2.49%, 개인형퇴직연금 3.00%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총비용부담률

- 총비용부담률은 전년대비 0.005%p 소폭 하락한 0.417%로 나타났다.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0.344%, 확정기여형·IRP특례 0.573%, 개인형퇴직연금 0.430%으로 기록되었고,
-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64%, 금융투자 0.387%, 생명보험 0.379%, 손해보험 0.292%, 근로복지공단 0.080%으로 나타났다.



### 4. 연금수령

- 2021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397,270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4.3%로 전년(3.3%) 대비 1.0%p 증가했다.
- 금액 기준으로 전체 9.3조원 중 34.3%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858만원으로 나타났다.

\* '20년 연금수령 비중: 계좌기준 3.3%, 금액기준 28.4%, 평균수령액 1억 8,998만원

※ 참고 1: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참고 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용어 설명

I. 개 황

총 평

- ▣ '21년말 적립금은 295.6조원으로, 전년(255.5조원) 대비 15.7% 증가
- ▣ '21년 연간 수익률은 2.00%로 전년(2.58%) 대비 0.58%p 하락

□ (적립금) '21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6조원으로 전년 (255.5조원) 대비 40.1조원(15.7%) 증가

※ 적립금(조원): ('19년말) 221.2 → ('20년말) 255.5 → ('21년말) 295.6

○ 적립금 중 86.4%(255.4조원)는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대기성 자금 포함)되었으며, 13.6%(40.2조원)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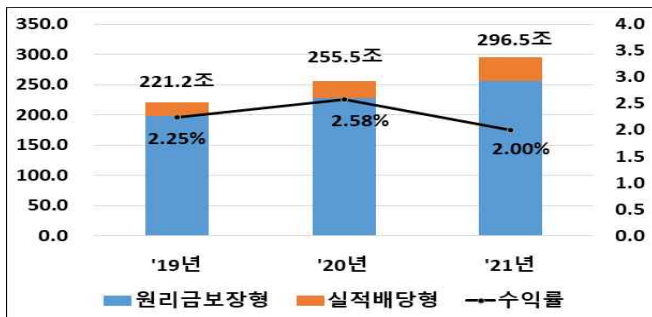
□ (수익률)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2.00%(원리금보장형 1.35%, 실적배당형 6.42%)로 전년(2.58%) 대비 0.58%p 하락

※ 연간 수익률(%): ('19년) 2.25 → ('20년) 2.58 → ('21년)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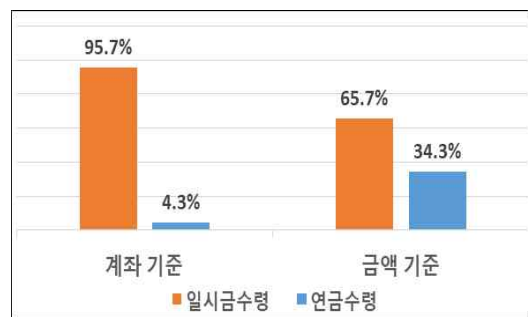
○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96%, 2.39%

□ (연금수령) '21년 중 퇴직연금 수급(만 55세 이상)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형태 수령은 4.3%(금액기준 34.3%)를 차지

최근 3년간 적립금 및 수익률



연금수령 비율



※ '21년말 현재 적립금이 있는 44개 운용관리 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 기준으로 작성

## II. 적립금 현황

### 1 제도유형별 (DB · DC · 개인형IRP)

□ '21년말 적립금은 295.6조원으로 전년 대비 40.1조원(15.7%) 증가\*

\* 전년대비 증가액: '19년 31.2조원 → '20년 34.3조원 → '21년 40.1조원  
(증가율) (16.4%) (15.5%) (15.7%)

○ 확정급여형 [이하 'DB']은 171.5조원 (+17.6조원, 11.4% ↑), 확정기여형·기업형IRP [이하 'DC']는 77.6조원 (+10.4조원, 15.4% ↑)

- DB 대비 DC 적립금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 추세 지속\*

\* [DB:DC 비중 추이] ('19년) 1: 0.42 → ('20년) 1: 0.44 → ('21년) 1: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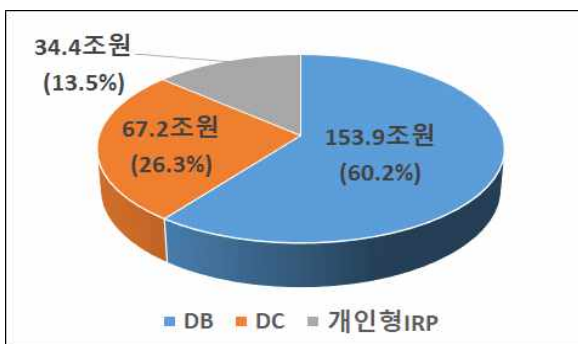
○ 한편,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형IRP는 46.5조원 (+12.1조원, 35.1% ↑)으로 최근 3년 연속 30%대의 성장세\*를 기록

\* 개인형IRP 증가율(%): ('19년) 32.4 → ('20년) 35.5 → ('21년)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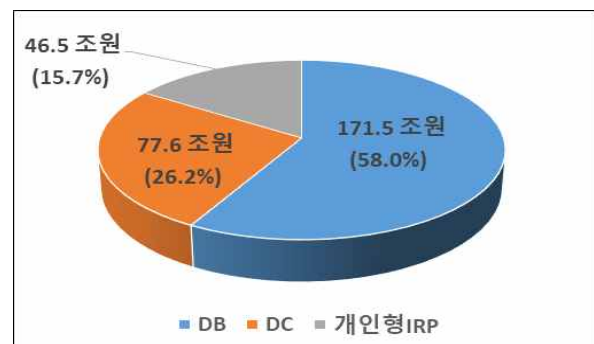
- '20년 주가 급등\* 등에 따른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강화 등 영향으로 금투(+4.6조원, 61.4% ↑)의 성장률이 은행(+7.2조원, 30.3% ↑)을 크게 상회

\* 코스피: ('19.12말) 2,197.67 → ('20.12말) 2,873.47 → ('21.12말) 2,977.65

'20년 적립금 현황



'21년 적립금 현황



##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DB		DC·기업형IRP		개인형IRP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년말[A]	171.5	58.0	77.6	26.2	46.5	15.7	295.6	100.0
'20년말[B]	153.9	60.2	67.2	26.3	34.4	13.5	255.5	100.0
증감[A-B]	17.6	△2.2	10.4	△0.1	12.1	2.3	40.1	-
(증감률)[(A-B)/B]	11.4		15.4		35.1		15.7	
증감내역	사용자 납입	31.0	18.9	-	49.9			
	가입자 납입	-	0.1	6.4	6.5			
	퇴직급여 지급	△1.1	△3.9	△16.0	△21.0			
	운용손익	2.3	1.6	4.8	8.7			
	기타 <sup>1)</sup>	△14.6	△6.3	16.9	△4.0			

주 1) 기타: 퇴직으로 DB·DC에서 개인형IRP로 이전된 금액, 퇴직보험·퇴직신탁에서 퇴직연금으로 이전된 금액, 계약이전 및 반환, 수수료 등으로 감소한 금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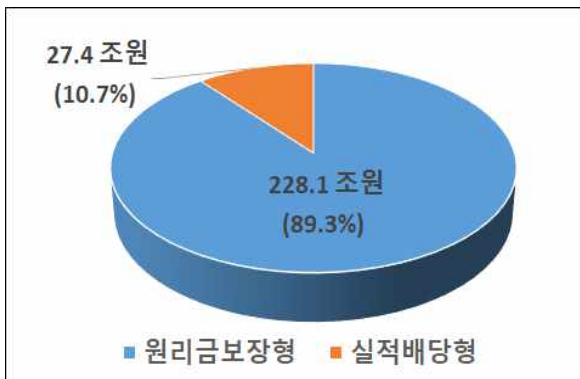
## 2 | 운용유형별 (원리금보장형 · 실적배당형)

□ '21년말 적립금 295.6조원 중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은 255.4조원(86.4%), 실적배당형은 40.2조원(13.6%)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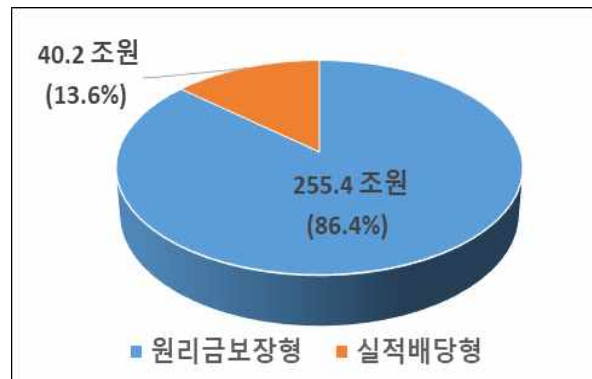
○ DC·IRP 중심의 적립금 성장 효과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2.9%p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

\* 실적배당형 비중(%): ('17말) 8.4 → ('18말) 9.7 → ('19말) 10.4 → ('20말) 10.7 → ('21말) 13.6

**'20년 적립금 운용현황**



**'21년 적립금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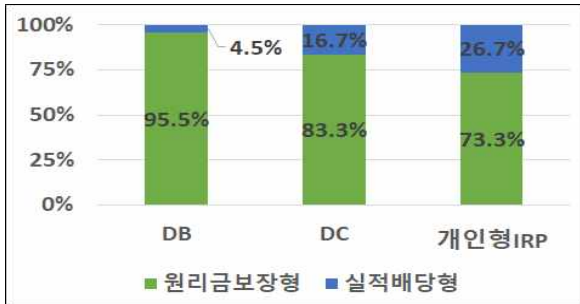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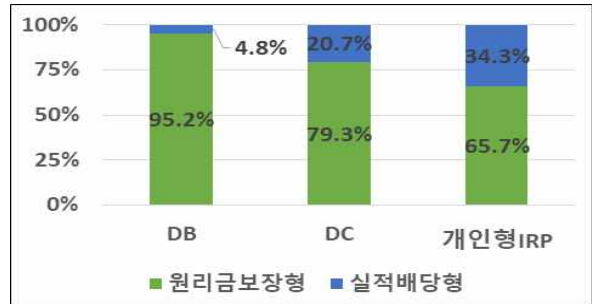
## 가. 제도유형별 특성

- DB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에 편중(95.2%)된 반면, DC 및 개인형 IRP는 실적배당형 비중(20.7%·34.3%)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다만, 모든 영역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의 증가 추세는 공통

'20년 제도별 운용비중(%)



'21년 제도별 운용비중(%)



## 제도유형별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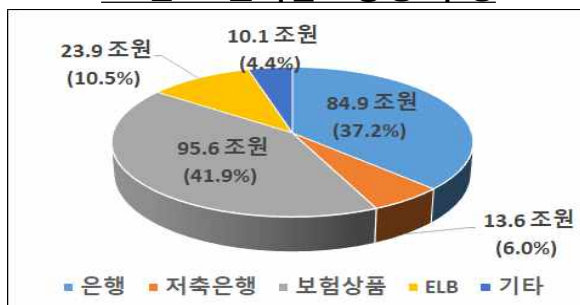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DB		DC		개인형 IRP		전체	
	원리금보장형	비중	원리금보장형	비중	원리금보장형	비중	원리금보장형	비중
합계	171.5	100.0	77.6	100.0	46.5	100.0	295.6	100.0
원리금보장형	163.3	95.2	61.5	79.3	30.5	65.7	255.4	86.4
실적배당형	8.2	4.8	16.1	20.7	16.0	34.3	40.2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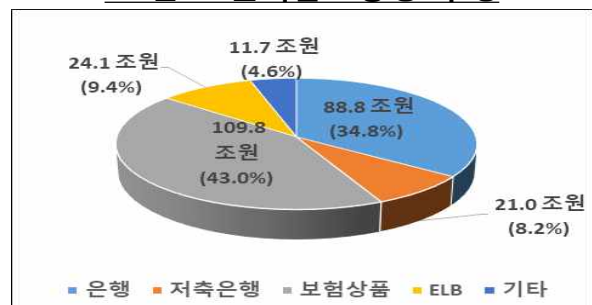
## 나. 유형별 상품 구성

- (원리금보장형) 예·적금과 보험(각각 109.8조원, 43.0%)이 동일 점유율로 가장 많고, 다음은 ELB(24.1조원, 9.4%) 순
- 금리 우위를 내세운 저축은행 예·적금의 점유비 증가(2.2%p↑)

'20년도 원리금보장형 구성



'21년도 원리금보장형 구성





##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단위: 조원, %, %p)

구분	예·적금				보험상품 <sup>1)</sup>		ELB <sup>2)</sup>		기타(국공채등) <sup>3)</sup>		합계	
	은행	비중	저축은행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년말[A]	88.8	34.8	21.0	8.2	109.8	43.0	24.1	9.4	11.7	4.6	255.4	100.0
'20년말[B]	84.9	37.2	13.6	6.0	95.6	41.9	23.9	10.5	10.1	4.4	228.1	100.0
증감[A-B]	3.9	△2.4	7.4	2.2	14.2	1.1	0.2	△1.1	1.6	0.2	27.3	-

- 주 1) 금리연동형보험(최저이율 보증) 및 금리확정형보험  
 2) 추가연계 파생결합사채(원금 이상 수익을 보장,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미발생 등 요건)  
 3) 대기성자금(10.0조원) 포함

### □ (실적배당형) 집합투자증권이 85.6%(34.4조원)\*로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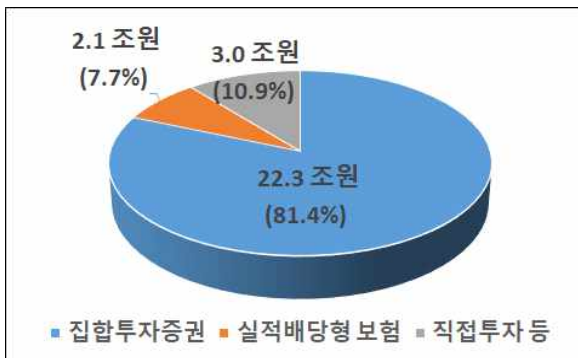
\*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포함시 88.2%(35.2조원)

- '21년 중 주식형\* 펀드가 급증(+8,0조원, 92.8% ↑)하여, 주식형 운용 규모(16.5조원)가 최초로 채권형\*(15.4조원)을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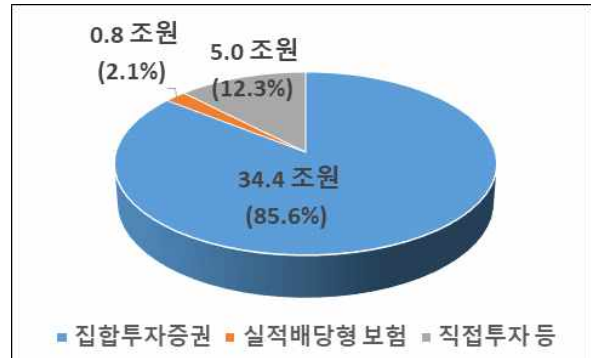
\* 주식형은 주식혼합형을, 채권형은 채권혼합형을 각각 포함한 수치

※ [채권형:주식형 비중 추이] ('19말) 1: 0.31 → ('20말) 1: 0.62 → ('21말) 1: 1.07

'20년도 실적배당형 구성



'21년도 실적배당형 구성



##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단위: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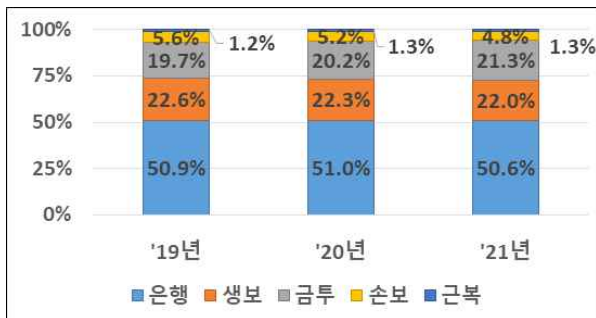
구분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직접투자 등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년말[A]	34.4	85.6	0.8	2.1	5.0	12.3	40.2	100.0
'20년말[B]	22.3	81.4	2.1	7.7	3.0	10.9	27.4	100.0
증감[A-B]	12.1	4.2	△1.3	△5.6	2.0	1.4	12.8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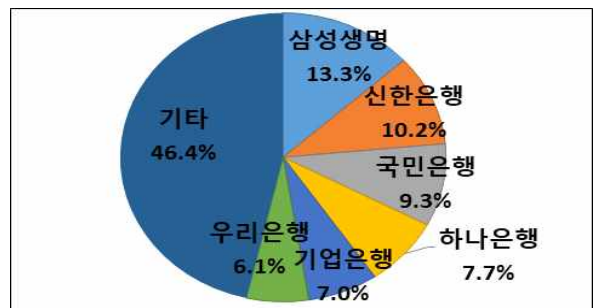
금융 권역별(운용관리기관 기준)

- 권역별 점유율은 은행(50.6%)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2.0%), 금융투자(21.3%), 손해보험(4.8%), 근복단(1.3%) 順
- 수익률을 고려한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금융투자권역의 증가 및 보험권역의 감소 추세가 지속

권역별 점유율 추이(%)



사업자별 점유율('21년, %)



금융권역별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은행	비중	생보	비중	금투	비중	손보	비중	근복단	비중	합계	비중
'21년말[A]	149.7	50.6	65.0	22.0	63.1	21.3	14.1	4.8	3.7	1.3	295.6	100.0
'20년말[B]	130.4	51.0	56.9	22.3	51.7	20.2	13.3	5.2	3.2	1.3	255.5	100.0
증감[A-B]	19.3	△0.4	8.1	△0.3	11.4	1.1	0.8	△0.4	0.5	0.0	40.1	-
(증가율)	(14.8)		(14.1)		(22.1)		(6.1)		(15.3)		(15.7)	

- 한편, 실적배당형 비중은 금융투자(27.7%)가 가장 높았으며 은행(12.6%), 생보(5.4%), 근복단(3.5%) 및 손보(1.3%) 등 順으로 권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

권역별 운용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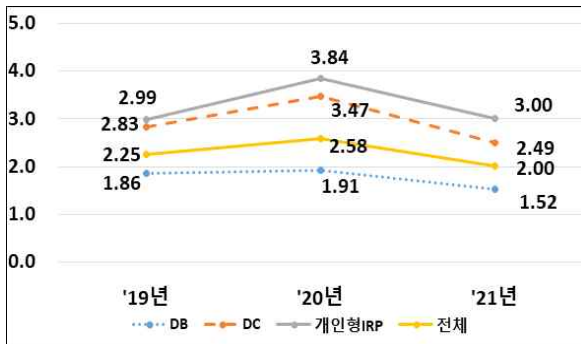
구분	은행	비중	생보	비중	금투	비중	손보	비중	근복단	비중	합계	비중
원리금보장형	125.8	84.0	61.1	94.0	41.1	65.1	13.9	98.7	3.5	95.7	245.4	83.0
실적배당형	18.9	12.6	3.5	5.4	17.5	27.7	0.2	1.3	0.1	3.5	40.2	13.6
대기성자금	5.0	3.4	0.4	0.6	4.5	7.2	0.0	0.0	0.1	0.8	10.0	3.4
합계	149.7	100.0	65.0	100.0	63.1	100.0	14.1	100.0	3.7	100.0	295.6	100.0

### Ⅲ.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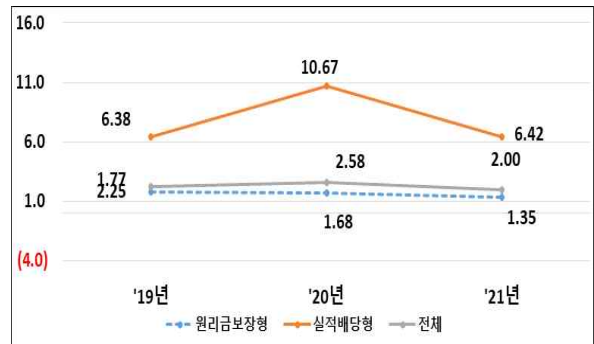
#### 1 연간 수익률

- '21년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주가 정체, 저금리 지속 등 영향으로 전년(2.58%) 대비 0.58%p 감소한 2.00%를 기록
- DB(1.52%)에 비해 DC(2.49%) 및 개인형IRP(3.00%)의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었으며, 3개 영역 모두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임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추이(%)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추이(%)



####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p)

구 분		DB	DC	개인형IRP	전 체
전체	'21년	1.52	2.49	3.00	2.00
	'20년	1.91	3.47	3.84	2.58
	증감	△0.39	△0.98	△0.84	△0.58
원리금 보장형	'21년	1.45	1.28	0.97	1.35
	'20년	1.74	1.69	1.27	1.68
	증감	△0.29	△0.41	△0.30	△0.33
실적 배당형	'21년	2.85	7.34	7.32	6.42
	'20년	4.89	13.24	11.95	10.67
	증감	△2.04	△5.90	△4.63	△4.25

※ 수수료 차감 후 적립금(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익률이며, 대기성자금은 원리금보장형에 포함하여 산정(이하 동일)

□ **(원리금보장형)** 전년(1.68%) 대비 0.33%p 하락한 1.35%를 기록

- 코로나 이후 지속된 초저금리 구간\*에 해당되어, 예·적금, 보험 등 주요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하락한 데 기인

\* 한은 기준금리(%): ('19말) 1.25 → ('20.5) 0.50 → ('21.8) 0.75 → ('21말) 1.00

※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1년, %): ('19말) 2.10 → ('20말) 1.90 → ('21말) 2.37

□ **(실적배당형)** 전년(10.67%) 대비 4.25%p 악화된 6.42%를 기록

- '20년 폭등기 대비 주식시장이 정체 국면을 보임에 따라 수익률이 '19년 수준(6.38%)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

※ KOSPI 상승률(%): ('19말) 7.67 → ('20년) 30.75 → ('21년) 3.63

- 증시 침체로 '21년 펀드 수익률이 국내 주식형(19.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이 악화의 직접적 원인

※ 공모펀드 유형별 수익률(한국펀드평가, %)

[국내주식형] ('20년) 25.3 → ('21년) 5.7 [국내혼합형] ('20년) 12.4 → ('21년) 4.7

[해외주식형] ('20년) 23.5 → ('21년) 10.9 [해외혼합형] ('20년) 9.5 → ('21년) 9.7

□ **(권역별)**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금투(3.17%)가 가장 높고 생보(1.93%), 손보(1.69%), 은행(1.59%) 및 근복단(1.31%) 순

- 은행의 원리금보장형 수익률(1.06%)이 타 권역 대비 낮은 편

###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p)

구 분	금투	생보	손보	은행	근복단	전체
'21년[A]	3.17	1.93	1.69	1.59	1.31	2.00
원리금보장형	1.62	1.70	1.67	1.06	1.16	1.35
실적배당형	7.42	5.84	3.43	5.63	6.67	6.42
'20년[B]	3.78	2.39	2.03	2.26	1.9	2.58
증감[A-B]	△0.61	△0.46	△0.34	△0.67	△0.59	△0.58

## 2

## 장기수익률

- '21년 기준 최근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96%, 2.39%이며, 유형별로 원리금보장형은 1.59%(5년)·2.19%(10년), 실적배당형은 5.18%(5년)·4.09%(10년)로 산정
- 10년 대비 5년 수익률이 부진한, 즉 수익률이 하락 추세인 원인은 최근 10년간 금리가 하락\*한 결과, 적립금 비중이 큰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이에 연동하여 낮아진 데 기인

\* 최근 10년간 한은 기준금리(%): ('11말) 3.25 → ('16말) 1.25 → ('21말) 1.00

##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권역	구분	DB	DC	개인형IRP	전체
전체	5년	1.67	2.37	2.36	1.96
	10년	2.22	2.73	2.49	2.39
원리금보장형	5년	1.64	1.50	1.52	1.59
	10년	2.18	2.35	1.93	2.19
실적배당형	5년	3.33	5.79	5.51	5.18
	10년	3.27	4.40	4.20	4.09

※ '21년 기준 과거 5년, 10년간 수수료 차감 후 연환산 수익률(이하 동일)

-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중심의 금융투자 권역이 가장 높고 생보, 손보, 근복단 및 은행 順
- 실적배당형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금투 권역의 장기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남

## 권역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은행
5년	2.64	1.97	1.85	1.67	1.69
10년	2.83	2.41	2.40	-	2.21

3

총비용부담률\*

\*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비용) ÷ 기말적립금

- '21년 적립금의 총비용부담률은 펀드비용 증가(2.0bp ↑)에도 불구하고, 전년(42.2bp) 대비 소폭(0.5bp ↓) 낮아진 41.7bp를 기록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p)

구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전체
'21년	0.158	0.174	0.085	0.417
'20년	0.173	0.184	0.065	0.422
증감	△0.015	△0.010	0.020	△0.005

- (유형별) DB(34.4bp)는 전년 대비 2.3bp 하락한 반면, 개인형 IRP(42.9bp)는 펀드비용 증가(79.1% ↑) 등 영향으로 3.5bp 상승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p)

구분	DB	DC	개인형IRP	전체
'21년	0.344	0.573	0.430	0.417
'20년	0.367	0.564	0.394	0.422
증감	△0.023	0.009	0.036	△0.005

- (권역별) 근로복지공단\*(8.0bp)이 가장 낮았으며 손보(29.2bp), 생보(37.9bp), 금융투자(38.7bp), 은행(46.4bp) 순으로 높아짐

\*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운용관리업무만 수행)

- 은행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이 타 권역 대비 높은 특징

\* (운용관리): 은행 18.3bp vs 평균 15.8bp, (자산관리): 은행 20.0bp vs 평균 17.5bp

금융권역별 현황

(단위: %, %p)

구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21년	0.464	0.387	0.379	0.292	0.080
'20년	0.457	0.409	0.363	0.338	0.070
증감	0.007	△0.022	0.016	△0.046	0.010

※ 각 계약별로 부담한 총 비용은 DB·DC·IRP 등 제도유형별로 상이하고, 가입금액,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참조

## IV. 수급형태 (연금 · 일시금)

- (연금수령비율) '21년 중 만 55세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97,270좌) 중 95.7%(380,286좌)가 일시금을 선택하였으며, 연금수령은 4.3%(16,984좌)를 차지
  - 금액 기준으로는 총 9.3조원 중 34.3%(3.2조원)가 연금으로 수령
    - ※ 연금수령비율(전년 대비): 계좌수 기준 1.0%p ↑, 금액 기준 6.0%p ↑
- (수령액) 일시금 선택시 평균 수령액은 1,615만원으로, 연금 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1억 8,858만원)의 8.6% 수준
  - 일시금을 선호한다기보다 수급 개시 시점의 적립금 규모가 작아서, 일시금 선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억원, %)

구 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 계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계좌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	0.16	-	0.24	-

- (수령주기) '21.12월말 현재 연금수령 중인 계좌(54,962좌)의 대부분(85.7%)은 연금수령 주기를 月로 선택

### 수령주기별 연금수령 현황

(단위: 좌, %)

구 분	월		분기		반기		년		기타		계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계좌수	47,109	85.7	474	0.9	174	0.3	6,409	11.7	796	1.4	54,962	100

※ '21.12월말 현재 연금수령중인 계좌 수 기준



## '21년말 기준 퇴직연금 통계

### 1. 적립금 규모

#### □ 운용관리계약 기준(잔액기준)

(단위: 억원, %)

권역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21.12월	705,021	41.1	470,766	61.6	10,736	92.5	310,752	66.8	1,497,275	50.7
	'20.12월	638,945	41.5	416,845	63.0	10,040	93.4	238,555	69.3	1,304,385	51.0
생보	'21.12월	519,940	30.3	101,188	13.2	495	4.3	27,829	6.0	649,452	22.0
	'20.12월	452,528	29.4	90,903	13.8	448	4.2	25,460	7.4	569,338	22.3
손보	'21.12월	119,021	6.9	17,483	2.3	34	0.3	4,567	1.0	141,105	4.8
	'20.12월	111,785	7.3	16,530	2.5	34	0.3	4,626	1.3	132,975	5.2
금융투자	'21.12월	371,302	21.6	137,607	18.0	282	2.4	121,819	26.2	631,011	21.3
	'20.12월	336,106	21.8	104,844	15.9	170	1.6	75,485	21.9	516,605	20.2
근로복지공단	'21.12월	-	-	36,935	4.8	53	0.5	42	0.0	37,031	1.3
	'20.12월	-	-	32,030	4.8	52	0.5	40	0.0	32,121	1.3
계	'21.12월	1,715,284	100.0	763,979	100.0	11,601	100.0	465,009	100.0	2,955,873	100.0
	'20.12월	1,539,363	100.0	661,151	100.0	10,744	100.0	344,167	100.0	2,555,425	100.0

- 주 1) 권역간 비중  
 2)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3) 근로복지공단은 DB 미취급

## 2. 적립금 운용 현황

### □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389,394	22.7	349,750	45.8	8,333	71.8	131,423	28.3	878,900	29.7
	예·적금(사축은행)	56,186	3.3	72,716	9.5	757	6.5	80,553	17.3	210,212	7.1
	예·적금(우체국)	903	0.1	4,918	0.6	61	0.5	2,993	0.6	8,874	0.3
	금리확정형 보험	890,670	51.9	97,251	12.7	486	4.2	19,416	4.2	1,007,823	34.1
	금리연동형 보험	49,171	2.9	29,184	3.8	138	1.2	11,792	2.5	90,285	3.1
	국채	75	0.00	306	0.0	-	-	923	0.2	1,304	0.0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원리금보장형 ELB	216,492	12.6	9,379	1.2	2	0.0	15,151	3.3	241,025	8.2
	RP	1,620	0.1	5,628	0.7	18	0.2	2,132	0.5	9,398	0.3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5,741	0.3	195	0.03	-	-	289	0.06	6,226	0.2
합계	1,610,252	93.9	569,329	74.5	9,794	84.4	264,672	56.9	2,454,047	83.0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749	0.0	5,903	0.8	18	0.2	1,667	0.4	8,337	0.3
	집합투자증권	48,512	2.8	146,303	19.2	1,383	11.9	147,878	31.8	344,076	11.6
	직접투자	32,336	1.9	7,272	1.0	14	0.12	9,956	2.1	49,579	1.7
	합계	81,598	4.8	159,478	20.9	1,415	12.2	159,501	34.3	401,992	13.6
대기성자금	23,435	1.4	35,172	4.6	392	3.4	40,836	8.8	99,834	3.4	
합계	1,715,284	100.0	763,979	100.0	11,601	100.0	465,009	100.0	2,955,873	100.0	

### □ 제도유형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 투자 증권	주식형	6,737	13.7	56,103	36.9	325	23.2	50,302	33.6	113,467	32.2
	주식혼합형	3,903	7.9	17,965	11.8	168	12.0	29,984	20.1	52,020	14.8
	채권혼합형	11,870	24.1	46,938	30.8	586	41.8	33,097	22.1	92,490	26.2
	채권형	19,967	40.5	18,710	12.3	242	17.3	22,673	15.2	61,593	17.5
	기타	972	2.0	317	0.2	1	0.1	262	0.2	1,552	0.4
합계	43,449	88.2	140,033	92.0	1,322	94.4	136,317	91.2	321,121	91.1	
부동산집합투자증권	2,282	4.6	253	0.2	0.83	0.059	255	0.2	2,791	0.8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350	0.7	30	0.02	-	0.00	10	0.01	390	0.1	
혼합집합투자증권	3,180	6.5	11,891	7.8	83	5.9	12,958	8.7	28,112	8.0	
합계	49,261	100.0	152,206	100.0	1,401	100.0	149,545	100.0	352,413	100.0	
TDF	TDF	980	2.0	30,430	20.0	248	17.7	44,648	29.9	76,306	21.7
	적격TDF <sup>3)</sup>	922	1.9	29,869	19.6	238	17.0	43,875	29.3	74,904	21.3

주 : 1) 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를 충족한 TDF

## □ 권역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783,146	52.3	29,037	4.5	2,326	1.6	41,606	6.6	22,785	61.5	878,900	29.7
	예·적금(저축은행)	161,793	10.8	7,745	1.2	642	0.5	39,882	6.3	150	0.4	210,212	7.1
	예·적금(우체국)	3,612	0.2	-	-	-	-	5,263	0.8	-	-	8,874	0.3
	금리확정형 보험	218,529	14.6	490,792	75.6	105,472	74.7	180,523	28.6	12,507	33.8	1,007,823	34.1
	금리연동형 보험	6	0.0	61,170	9.4	28,741	20.4	368	0.1	-	-	90,285	3.1
	국채	-	-	-	-	-	-	1,304	0.2	-	-	1,304	0.0
	통안증권	-	-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	-
	원리금보장형 ELB	86,777	5.8	21,901	3.4	2,006	1.4	130,340	20.7	-	-	241,025	8.2
	RP	-	-	-	-	-	-	9,398	1.5	-	-	9,398	0.3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118	0.3	106	0.0	20	0.01	1,981	0.3	-	-	6,226	0.2
합계	1,257,982	84.0	610,752	94.0	139,206	98.7	410,665	65.1	35,441	95.7	2,454,047	83.0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	-	6,760	1.0	1,355	1.0	1	0.0	222	0.6	8,337	0.3
	집합투자증권	175,557	11.7	27,991	4.3	430	0.3	139,041	22.0	1,057	2.9	344,076	11.6
	직접투자	13,343	0.9	263	0.0	-	-	35,973	5.7	-	-	49,579	1.7
	합계	188,899	12.6	35,013	5.4	1,785	1.3	175,015	27.7	1,279	3.5	401,992	13.6
대기성자금	50,394	3.4	3,686	0.6	113	0.08	45,331	7.2	311	0.8	99,834	3.4	
합계	1,497,275	100.0	649,452	100.0	141,105	100.0	631,011	100.0	37,031	100.0	2,955,873	100.0	

## □ 권역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투자 증권	주식형	48,328	27.5	12,538	36.1	289	16.2	51,558	37.1	754	59.0	113,467	32.2
	주식혼합형	33,735	19.2	2,977	8.6	60	3.4	15,247	11.0	-	-	52,020	14.8
	채권혼합형	44,172	25.2	11,092	31.9	1,368	76.7	35,394	25.5	464	36.3	92,490	26.2
	채권형	39,192	22.3	6,256	18.0	48	2.7	16,036	11.5	61	4.7	61,593	17.5
	기타	836	0.5	376	1.1	18	1.0	322	0.2	-	-	1,552	0.4
합계	166,264	94.7	33,238	95.6	1,783	99.9	118,557	85.3	1,279	100.0	321,121	91.1	
부동산집합투자증권	184	0.1	933	2.7	0	0.0	1,673	1.2	-	-	2,791	0.8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251	0.1	109	0.3	2	0.1	27	0.02	-	-	390	0.1	
혼합집합투자증권	8,858	5.0	469	1.4	-	-	18,785	13.5	-	-	28,112	8.0	
합계	175,557	100.0	34,751	100.0	1,785	100.0	139,042	100.0	1,279	100.0	352,413	100.0	
TDF	44,922	25.6	1,716	4.9	78	4.4	29,060	20.9	530	41.4	76,306	21.7	
적격TDF <sup>3)</sup>	43,360	24.7	1,695	4.9	78	4.4	29,241	21.0	530	41.4	74,904	21.3	

주 : 1) 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를 충족한 TDF

### 3. 운용관리사업자별 . 제도유형별 적립금 및 점유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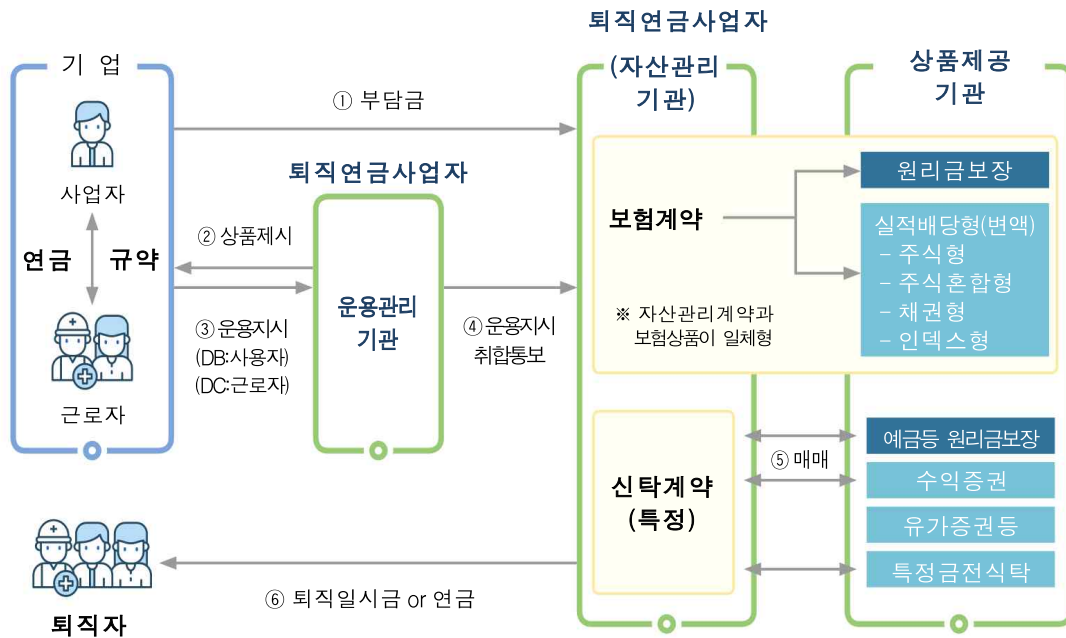
권역	사업자명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권역내 점유율
은행 (12)	신한은행	129,882	92,127	1,761	78,017	301,787	20.2
	국민은행	89,997	97,209	2,847	83,618	273,672	18.3
	하나은행	111,077	59,624	455	57,294	228,450	15.3
	기업은행	98,141	91,724	1,358	15,451	206,673	13.8
	우리은행	86,061	52,001	902	42,413	181,378	12.1
	농협은행	85,093	47,804	1,559	24,103	158,559	10.6
	산업은행	69,556	5,082	1	1,040	75,679	5.1
	부산은행	12,451	6,029	176	3,416	22,072	1.5
	대구은행	9,533	8,160	401	2,051	20,145	1.3
	경남은행	8,313	4,653	439	2,260	15,665	1.0
	광주은행	4,917	6,352	836	1,087	13,192	0.9
	제주은행	-	1	0	1	2	0.00
<b>은행 소계</b>		<b>705,021</b>	<b>470,766</b>	<b>10,736</b>	<b>310,752</b>	<b>1,497,275</b>	<b>100.0</b>
생보 (11)	삼성생명	326,007	50,038	268	16,387	392,700	60.5
	교보생명	62,165	25,087	48	4,161	91,461	14.1
	미래에셋생명	43,975	11,118	-	2,394	57,486	8.9
	한화생명	40,953	7,054	10	1,638	49,654	7.6
	푸른현대생명	12,752	403	1	47	13,203	2.0
	흥국생명	11,192	1,788	-	113	13,093	2.0
	IBK연금보험	5,907	3,671	168	2,781	12,526	1.9
	신한생명	8,690	801	-	84	9,575	1.5
	동양생명	4,742	579	-	173	5,494	0.8
	DB생명	3,559	648	-	51	4,258	0.7
	KDB생명	0.00	0.3	-	0.4	0.7	0.0
<b>생보 소계</b>		<b>519,940</b>	<b>101,188</b>	<b>495</b>	<b>27,829</b>	<b>649,452</b>	<b>100.0</b>
손보 (6)	삼성화재	41,956	8,084	0.04	2,284	52,324	37.1
	KB손보	27,321	4,306	-	919	32,546	23.1
	롯데손보	23,515	1,600	-	619	25,734	18.2
	현대해상	12,721	2,376	-	555	15,653	11.1
	DB손보	13,492	1,089	34	189	14,804	10.5
	한화손보	15	28	-	0.4	44	0.03
<b>손보 소계</b>		<b>119,021</b>	<b>17,483</b>	<b>34</b>	<b>4,567</b>	<b>141,105</b>	<b>100.0</b>
금융 투자 (14)	미래에셋증권	64,692	61,144	121	43,941	169,899	26.9
	현대차증권	138,723	2,328	-	9,680	150,731	23.9
	한국투자증권	53,267	19,989	63	13,607	86,926	13.8
	삼성증권	30,244	21,064	-	24,926	76,234	12.1
	NH투자증권	26,756	8,291	78	9,553	44,678	7.1
	신한금융투자	19,838	10,011	-	5,586	35,434	5.6
	KB증권	22,332	6,176	-	5,330	33,838	5.4
	대신증권	5,595	4,583	-	1,994	12,171	1.9
	하나금융투자	5,710	1,246	1	2,072	9,030	1.4
	하이투자증권	3,677	322	-	1,684	5,683	0.9
	신영증권	275	913	-	652	1,840	0.3
	한화투자증권	-	869	-	882	1,751	0.3
	한국포스증권	-	-	-	1,410	1,410	0.2
유안타증권	194	669	19	503	1,385	0.2	
<b>금투 소계</b>		<b>371,302</b>	<b>137,607</b>	<b>282</b>	<b>121,819</b>	<b>631,011</b>	<b>100.0</b>
<b>근로복지공단</b>		<b>-</b>	<b>36,935</b>	<b>53</b>	<b>42</b>	<b>37,031</b>	<b>100.0</b>
<b>합계</b>		<b>1,715,284</b>	<b>763,979</b>	<b>11,601</b>	<b>465,009</b>	<b>2,955,873</b>	

주) '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는 총 46개사(은행 12, 생보 12, 손보 7, 금투 14, 근로복지공단 1)이나, 하나생명·MG손보는 실적無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 **IRP특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 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 **수익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 \* 단, 비용(수수료 등)은 적립금 총액 계산 시 제외
  -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 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 N년 기준 기하평균 수익률  $R_n : [(1+r_1) \times (1+r_2) \times \dots \times (1+r_n)]^{(1/n)} - 1$
- **총비용부담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해당연도 총비용을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 \* 총비용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 총비용
    - \*\* 평균적립금 = (기말 운용관리적립금 + 기말 자산관리적립금) ÷ 2